

19대 총선
정당 공천

민주통합당 8일 확정·새누리당 안개

민주 6~7일 모바일·8일 현장투표... 새누리 경선 여부 불투명

모 지방지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 일찌감치 확정” 오보 물의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경선 일정이 잡혀 8일 밤에는 공천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새누리당은 경선을 할지 안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현재 손문영·안종복·정문현 등 3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최근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자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지난 18대 총선 때처럼 공천 후유증이 우려된다.

새누리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을 할지 하지 않을지 알 수 없다”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5일 경선 후보자 등록과 기호 주첨을 한 뒤 6~7일 이틀간 모바일 투표(핸드폰으로 선택)를 하고 8일에는 각 지역별 선관위에서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는 중앙당에서 집계한 뒤 8일 밤이나 9일 오전에 발표해 공천자를 확정짓는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난달 후보자에 대한 면접에 이어 중앙당 차원에서 25일과 26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근거로, 경선 없이 공천자를 확정해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공천에서 제외된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일 모 지방지가 ‘도내 정당 필승 전략 구체화’란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선거구는 민주통합당에서는 송훈석 의원을 단수 공천자로 일찌감치 확정할 상태’라고 오보를 해 물의를 빚었다.

이동기 후보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 신문은 인터넷판에 ‘민주통합당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송훈석 의원과 이동기 예비후보를 경선후보로 확정하고’라고 바로 잡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와 관련 이동기 예비후보는 “우리 선거구에서는 당초 3명에

서 2명으로 경선 후보자가 발표됐으며,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까지 마친 상황인데 모 신문에서 특정 후보가 내정도 아니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이제부터 우리도 학생이에요”

간성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린 지난 2일 1학년 3반(담임 신미선) 어린이들이 1년간 공부할 교실에서,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학습계획과 준비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간성초는 이날 1학년 3반 25명 등 3개 학급에 총 73명이 입학했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3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원광연 기자



지난 1일 제93주년 3.1절 행사가 운봉리 송모공원에서 열렸다.

독립 애국지사들 위업 기려

운봉리 송모공원에서 3.1절 기념 행사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93주년 3.1절 기념식이 독립운동가 마을인 토성면 운봉리 송모공원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고성군이 주관하고 송모비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황종국 군수, 문명호 군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애국가 제창, 헌화 및 분향, 3.1운동 역사와 선열들의 위업을 소개하

는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고성항창단원의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념식이 열린 운봉리 송모공원은 일제강점기 국권침탈 반대 및 자주독립을 위해 항거한 이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5명의 구국충정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0년 애국지사 구국 송모비를 조성해 3.1절 독립운동 사진 전시회, 3.1 독립 애국지사 구국충정 송모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